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5. 08.18

그동안 쉼의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도시 사역의 외로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 단체로부터 후원 신청 이메일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선진국 사역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교회와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음은 큰 은혜입니다.

안식년 동안 청년 사역은 잠시 내려놓았지만, 친구 관계 사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6주 무료 이벤트를 통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트레이너 ‘플랭크’는 호주인이지만, 이라크 출신 난민으로 정착한 무슬림 친구였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도 물만 마시며 운동을 이어갈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직업을 묻는 대화 속에서 기독교 상담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손자에게 깊은 애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 저에게 병원 동행과 기도를 부탁했고, 그날 밤 할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날 밤, 라마단의 27일째 되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셨고, 함께 영접기도를 드린 후 평안하게 임종하셨습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하고 기적적인 밤으로 여겨지는 그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즈베크에서 사역하던 시절에도 라마단 27일 밤에 두 명의 대학생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기도했던 친구들이었기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를 맺으신 날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의 평안한 임종을 지켜본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헬스클럽 무료 기간이 끝나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프랭크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소식에서 전해드린 미얀마 친구 ‘Ko’와는 계속해서 성경공부를 이어가고 있

습니다.

Ko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교회 출석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집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직 믿음은 없지만, 성경공부하러 오는 저를 따듯하게 맞아줍니다. 라오스 출신의 캐빈 가족과는 문자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캠퍼스와 청년 사역을 이어오며, 단순한 신앙 지식보다도 **삶을 실제로 세워주는 코칭과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래 전부터 코칭과 상담 관련 라이선스를 준비해왔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특히 선진국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한 채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으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아픔 속에 **상담의 도구와 복음의 진리**가 함께할 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이론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상담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프랭크와 그의 가족,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신 할머니의 간증이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도록
- 미얀마 친구 Ko와 그의 아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 라오스 출신 캐빈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 도시 사역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매가 있도록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의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혁, 김은주 올림